

‘날씨가 바꾼 역사이팅 세계사’ 반기성 지음

‘날씨·기후’ 세계 인류의 역사를 지배한다

미 국방성 미래보고서는 가장 먼저 핵전쟁이 벌어질 나라로 인도와 파키스탄을 꼽는다. 지구 온난화로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버리는 상황이 가정된 시나리오다. 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규모 기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핵전쟁이 인종이나 종교 갈등이 아닌 기후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올 여름 최악의 폭염이 맹위를 떨쳤다. 연일 지속되는 더위와 열대야로 전력대란 직전까지 이르렀다. 기상이변은 더 이상 ‘이변’이 아닌 현상이 되었다. 한국형 스쿼(Seal)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기후 변화의 진폭이 크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기상이변은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 러시아 시베리아는 지난 겨울 수온주가 영하 50도까지 떨어졌고 동사자가 속출했다. 지구 반대편 호주에서는 40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가 이어졌다. 120년 만의 극심한 폭염으로 200여 곳에서 산불이 났다.

아프리카에서는 기후 변화로 내전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초지의 부족으로 식량 생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비단 이런 사태가 아프리카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아프가니스탄에도 동남아에도 중남미에도 식량 부족으로 내전이 빈번하다.

기후산업 연구소 반기성 소장이 ‘날씨가 바꾼 역사이팅 세계사’를 펴냈다. 제목 그대로 역사적 사실 이면에 숨겨진 날씨의 비밀을 파헤친다. 저자는 날씨와 기후라는 관점으로 문명과 전쟁, 역사를 들여다본다.

일단, 저자가 근거로 삼고 있는 기후와 날씨의 크게 두 영역으로 분류된다. 전자가 문명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라면 후자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원인이라는 거다.

마야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대가뭄으로 멸망했다. 고대 에티오피아 지역에 근거한 악습 왕국도 극심한 가뭄 탓에 소멸되었다. 앙코르와트의 문명이 우림 속에 파묻혀버린 것도 야카드 제국이 멸망한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이었다.

소빙하기 때 그린란드에 살던 바이킹은 멸종되었으나 변화에 적응한 인뉴이트족은 살아남았다.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술탄이만 1세의 헝가리 정복과 프레베자 해전은 날씨가 승패를 결정했다. 나폴레옹이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질은 안개 덕분이었다.

그와 달리 고대 그리스를 침공한 페르시아군



은 강한 폭풍과 이상 조류로 패배했다. 십자군은 더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이슬람군에 대패했다.

우리나라 전쟁사를 보더라도 날씨는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고려를 위협하던 부여는 한랭한 기후로 무너졌고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는 얼어붙은 압록강 덕분에 진격이 가능했다.

이렇듯 기후와 날씨는 한 국가의 존립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수면이 올라가면 북극곰은 슬프다. 그러나 돌고래와 알바트로스는 신난다. 돌고래는 바닷물이 더워지면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알바트로스는 강해진 바람 덕분에 쉽게 날아 먹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날씨와 기후 변화는 대책이 없는 민족에게는 엄청난 위기이다. 그러나 잘 준비하고 적응하는 민족에게는 엄청난 기회일 수도 있다.”

《플래닛미디어·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환경·생활방식... ‘후성유전학’이 전하는 메시지

‘인간은 유전자를 어떻게...’ 터 슈포르크 지음

타고난 성격을 바꿀 수 있을까? 체형은 정말 타고난 것일까? 장수 유전자는 따로 있을까? 누구나 한번쯤 마음에 안 드는 몸의 특징을 유전자 탓으로 돌린 적이 있다. 몸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이 환경이나 생활방식의 영향을 받는지 의문을 가지기도 했을 것이다.

독일의 학술저널리스트이자 신경생물학 박사인 페터 슈포르크가 쓴 ‘인간은 유전자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는 이런 의문에 답을 준다. 저자는 ‘후성유전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통해 유전자로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의 진화 과정을 안내한다. 후성유전학은 세포에 저장되고 말세포(세포가 분열



하여 새로 생긴 세포)로 전달되지 않는 유전형질에는 포함되지 않은 분자생물학 정보를 다루는 학문이다. 후성유전학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의외로 간단하다. 생활방식이 우리 몸의 세포에 오롯이 새겨진다는 것. 그리고 후성유전물질이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스스로를 유전자의 꼭두각시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체질과 신진대사와 인성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생활방식을 변화시켜서 자신에게까지 이어지는 생활화적 선로를 준비하라. 그럼으로써 자신의 미래는 물론 자녀와 손자에게도 눈에 띄지 않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들을 계속 도울 수 있다.”

《갈매나무·1만6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3000년 역사 아이스크림의 모든 것

‘아이스크림의 지구사’ 로라 B. 와이스 지음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 불타게 팔린 빙과류 가운데 하나가 아이스크림이다. 차가운 상태로 먹어야 하는 아이스크림은 냉동기술의 발명과 더불어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아이스크림이 ‘근대음식’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바로 냉동기술과 밀접한 연관 때문이다.

뉴욕 대학교 아서 L. 카터 저널리즘 연구소 연구원인 로라 B. 와이스가 쓴 ‘아이스크림의 지구사’는 이런 통념을 깬다. 아이스크림이 3000년 전 탄생한, 역사가 오래된 음식이라는 것이다.

먼저 아이스크림은 얼음의 발견에서 시작되었다. 얼음에 매료된 고대 그리스-로마와 중국 당나라 황제들이 와인이나 꿀, 밀크 등을 천연얼음에 넣어 먹었는데, 이것이 아이스크림의 기원이 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이 여름에도 얼음으로 만든 음료와 디저트를 먹고 싶어 얼음 저장 방법과 인공적인 제조 방법을 고민해왔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현대식 아이스크림과 같은 얼음과자는 17세기 이탈리아에서 탄생했다. 얼음이나 눈에 설탕, 과일즙, 밀크를 섞어 얼린 이 ‘쇼베토’를 일부 음식학자는 최초의 아이스크림으로 칭한다. 이후 영국과 이탈리아 이민자를 통해 북아메리카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1843년 낸시 존슨의 제조기 발명으로 이어진다.

저자는 아이스크림이 유럽과 미국의 다양한 식문화 영향력이 결합돼 만들어졌지만, 아이스크림의 역사는 산업화 이후 미국에서 진화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고 설명한다.

《휴머니스트·1만6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폐쇄된 펌프장, 의문의 살인 사건

‘원티드 맨’ 리 차일드 지음

화려한 액션, 설득을 능가하는 추리력,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만드는 서스펜스...

영국 작가 리 차일드가 펴낸 ‘원티드 맨’은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평단의 주목을 받았다. 소설은 오래된 폐쇄된 펌프장에서 벌어지는 의문의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퇴역 군인으로 미국 전역을 떠돌아다니는 잭 리처는 마치 같은 사나이다. 어디선가 눈에 띄는 외형을 지녔지만 어디에도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



어느 날 그는 군청색 차를 얻어 타는데, 그 안에는 두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타고 있다. 잭리처는 그들 사이에 흐르는 어색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남자가 살인사건과 연관된 범인이라는 사실을 직감한다. 좁은 자동차 안에서 벌어지는 팽팽한 신경전과 조금씩 드러나는 진실, 그리고 테러집단과의 충격전은 온라인 게임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오픈하우스·1만4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자신의 삶을 살고 싶은 이들에게...

‘인생을 만들다’ 요시모토 바나나 외 지음

“타인을 변화시키는 일에 힘을 쏟기보다 진정으로 자신을 살아가는 길, 자신의 인생에 직면한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세요. 균형과 성장을 의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때 우주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첫 번째 편지·우리들의 영혼이 구하는 것들)”

일본을 대표하는 소설가 요시모토 바나나와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윌리엄 레이먼이 1년간 주고받은 편지를 묶은 에세이집 ‘요시모토 바나나의 인생을 만들다’가 출간됐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 가족과 아이와 동물을 향한 사랑, 작가가 된 진짜 이유... 서로 다른 성장배경과 직업, 나이를 뛰어넘어 힘들고 상처 많았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두사람의 이야기가 감성적인 문체로 그려진다.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일제강점기 댄 혼례를 어떻게 치렀을까

‘혼례와 상제례’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엮음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애 중요한 의식인 혼례와 상제례를 어떻게 치렀을까?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들이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던 ‘조선’에 게재되었던 글 중에 우리의 혼례와 상제례에 관한 내용을 번역해 ‘혼례와 상제례’를 엮었다.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그것에 나름의 해석을 밝히기도 하고, 일본과 우리의 의례를 비교하기도 했다.

책은 ‘조선’ 편집부가 정리한 ‘점점 늘어가는 내지인(일본인)과 조선인의 배우자’로 시작한다. “다이쇼(大正) 14년(1925) 12월 말일 현재 시점에



서 내지인과 조선인과의 배우자 수를 조사해 보면 총 404쌍으로 그 중 33쌍은 다이쇼 14년에 결혼한 배우자이다. 그중 조선인이 일본인 부인을 얻은 경우가 가장 많다...”

책은 단순히 우리의 전통 혼례와 상제례 문화를 돌아보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선총독부의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본 우리의 혼례와 상제례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의 식민 통치 정책으로 인해 우리의 전통 의례가 어떻게 변용되고 어떤 점이 지속해 왔는지 살펴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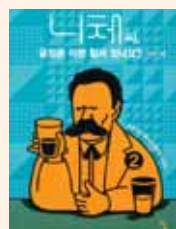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신간

▲대통령 의전의 세계=역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실 근무자 가운데 최장 근무기록의 보유자이자 헌정사상 최대·최대 규모의 의전 행사를 완수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수상한 전 청와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효겸이 대한민국 최고 의전의 이론과 실재를 집대성했다. 의전의 역사, 개념, 다른 나라의 의전조직에서 행사 기획, 특별 전략, 생생한 현장 이야기까지 한 권의 책에 총망라했다. (RHK·2만5000원)

▲니체새, 긍정은 어떤 힘이 있나?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기 시작한 청소년에게 자신과 이웃, 사회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키워 주는 인문 교양서. 반복되는 일상, 끝없는 지루함을 망치로 깨부수듯 통쾌하게 철학한 니체의 사상을 살펴본다.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 자신의 인생을 당당히 책임지라는 외침 등 매일을 열정적으로 살던 니체를 통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긍정의 힘’이란 것을 알려 준다. (탐·1만2000원)

▲애 사느냐면, 제주도에 =3박4일은 서울에서, 3박4일은 제주에서, 일주일의 8일처럼 사는 방송인 허수경이 풀어 낸 리얼 제주 라이프. 매스컴에서 많은 화제가 되었던 그녀의 제주 집을 비롯해 기적처럼 찾아 온 딸 별이와 감성 충만 제주 생활을 차곡차곡 담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제주 집 짓기의 노하우에서 모자란 주인의 양육 스토리까지 다채로운 그녀의 제주 생활을 만날 수 있다. (중앙m&b·1만4500원)



▲김범부의 생각을 찾아서=1897년에 태어나 1966년 세상을 떠난 김범부는 한국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김동리의 문학적 토대를 마련해준 스승 같은 만행이자, 당대의 천재 사상가로 이름난 전설적 인물이다. 범부 사상의 핵심을 보여주는 세 편의 문헌, ‘국민윤리특강’, ‘최제우론’, ‘신라문화와 풍류정신’을 부산대 김경근 명예교수가 현대적 문체로 다시 풀어냈다. 범부의 삶과 사상에 대한 해설도 실려 있다. (한울아카데미·1만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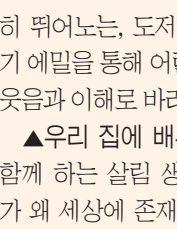
▲세번째 집 =가련한 존재들의 삶을 소설화하는 데에 주력해 온 작가 이경자의 신작.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출한 여자 성숙과 집 짓는 남자 인호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된다. 저자 특유의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인물들이 서로 만나고 부딪칠 때마다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와 집에 대한 철학이 반짝이며 풀려나온다. 내 집에서 외롭다는 걸 확인해야 하는 배반의 감정이 들었다면 이 책을 펼쳐보라. (문학동네·1만2000원)

▲도둑의 심리학 =오로지 돈을 벌어야 하는 관점에서만 돈을 바라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독일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심리치료사인 루디거 달게가 우리가 돈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심리학적 통찰력으로 설명한다. (하늘아래·1만4000원)

▲늘 싫다고 말한 사자 =‘잡 술술 상상력 속속’ 시리즈. 여기서도 싫고 저기서도 싫고 늘 싫다고만 하던 사자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다. 싫다고만 외치던 꼬마 사자는 결국 “네, 좋아요”만 말해야 하는 점으로 끌려간다. 아이들이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꿈나라로 향할 수 있게 도와준다. (지식나이트·8000원)

▲달이네 추석맞이=추석을 맞아 할머니 덕에 모인 달이네 가족에게 벌어지는 이야기.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의 모습과 풍습, 그 속에 담긴 문화를 알려 주는 문화 그림책이다. ‘우리 문화 제대로 알기’ 코너를 통해 이야기 속에서 다하지 못한 추석의 전통과 풍습에 대한 정보도 알차게 담았다. (푸른숲주니어·1만1000원)

▲우리 집 쓰레기통 좀 밀러 줘=변사또네 가족을 중심으로 매일 벌어지는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유쾌한 대화와 일러스트로 풀어냈다. ‘쓰줍(쓰레기 줍는 소년)’로 인터넷 스타로 떠오른 변사또와 지구 세 바퀴를 떠돌 정



체물명의 쓰레기통 미스터 통과와 기막힌 동고동락 속에서 쓰레기 문제의 현실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 (스콜라·1만원)

▲에밀은 사교공작=아름다운 자연과 순박한 사람들을 배경으로 에밀이 벌이는 갖가지 소동이 안 데르센상 수상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특유의 유머로 펼쳐진다. 절대 기죽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열심히 뛰어노는,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말쑥꾸러기 에밀을 통해 어린이다운 삶과 성장의 과정을 웃음과 이해로 바라보게 한다. (논장·9000원)

▲우리 집에 배추흰나비가 살아요=자연과 함께 하는 살림 생태학습 그림동화책. 애벌레가 왜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모르겠는, 단지 징그러운 벌레라고만 생각하던 여름이, 하지만 나비가 되기 위해 긴 기다림의 시간을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중한 생명임을 깨닫게 된다. 책을 읽는 어린이들에게 자연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탐험의 즐거움을 알려준다. (살림어린이·1만원)

어린이 책꽂이